

					II-B-5
제목	국문	암 정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암정보 활용 및 제공 현황과 관련 정보 요구도 조사			
	영문	A Study on the Status of Utilization and Need for Cancer related Information Developing of Cancer Information Contents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임민경 ¹ , 박숙경 ¹ , 양정희 ¹ , 이영성 ^{1,2} 국립암센터 암역학관리연구부 암정보연구과 ¹ ,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²			
	영문	Min Kyung Lim ¹ , Sook Kyung Park ¹ , Jeong Hee Yang ¹ , Young-Sung Lee ^{1,2} <i>Cancer Information Branch, Division of Cancer Control & Epidemiology, Research Institute, National Cancer Center¹,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, College of Medicine, Chungbuk National University²</i>			
분야	보건관리 [전산화및정보시스템]	발표자	임민경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중 → 완료예정시기 : 2001년 10월 20일				
<p>1. 목적</p> <p>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환자 및 가족들과 일반인들의 신뢰할 만한 암정보에 대한 탐색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암질환의 연구와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경우 관련 정보의 축적과 표준화를 통한 근거기반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다.</p> <p>이러한 요구에 의해 선진국에서는 국가단위의 전문 암 정보제공센터가 구축되어 표준화된 다양한 암 관련 정보를 각 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제공하고 있으나, 국내에는 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분류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동일 연구분야의 연구자들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않으며 최신 연구결과, 연구과제 등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.</p> <p>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암 관련 정보의 이용 현황 및 암 정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고, 암 관련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과 공유체계 확립 가능성을 타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암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</p> <p>2. 방법</p> <p>다음 두 개 분야에 대하여 우편설문 및 전화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.</p> <p>1) 암 정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및 암 정보 요구도 조사</p> <p>전국의과대학 및 병원의 의료인력 중 계통적 표본추출을 통하여 1,200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, 국내외 암 정보화 수준과 활용현황 파악, 국내 암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, 국내에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할 암 정보의 내용 및 구축 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.</p> <p>2) 암 관련 임상시험정보 DB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</p> <p>전국의과대학장 협의회 발간 '의과대학 교육현황'에 제시된 암 전문 의학과 전임교원 중 계통적 표본추출을 통한 360 명을 대상으로 국내 암관련 임상시험 정보 활용 현황, 임상시험 정보 DB 구축의 필요성, 연구자별 보유 임상시험 정보의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.</p> <p>3. 결과</p>					

1) 암 정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및 암 정보 요구도 조사

설문응답률은 현재까지 약 13.1% 수준이며, 응답자와 무응답자 간의 성별·연령별·전공별·지역별 응답률의 차이는 없었다.

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7.4%가 국내 종합 암정보망과 제공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내 암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, 국내 종합 암정보망 부재의 원인으로 국가단위 지원체계 및 정책의 부재(41.5%), 관련전문가들의 인식부족(23.7%),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의 부재(20.7%) 등이 지적되었다. 국가단위 암 정보 콘텐츠로 암등록 및 통계 정보(71.6%), 암 연구결과 정보(51.0%), 암 연구자원 정보(46.5%)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.

국내 암 연구결과정보 DB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내 문헌(37.6%) 혹은 국내외 문헌(33.1%) 모두에 대하여 국내 자체 DB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70.7%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, 국내 암 연구결과정보 DB 가 구축되면 향후 암관련 전문가 및 전문의에게 최신 연구 동향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.0%였고, 국내 암 질환에 대한 근거기반 의료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2.6% 였다.

국내 암 연구결과정보 DB 구축 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구 논문, 연구보고서, 학위논문이 각각 1, 2, 3 순위를 차지하였으며, 해당 연구결과 정보는 초록과 원문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, 검색편의를 위한 K-MeSH 등의 검색 도구의 개발과 지속적인 정보 갱신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.

암 연구자원 정보 중에서 인적자원으로는 교수인력 DB, 암 전문연구자 DB, 암 임상 전문가 DB 의 구축과 관련 정보 제공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,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관별 국내 연구 인력 DB 는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. 시설 및 장비 자원으로는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DB 와 신규장비 소개가, 연구지원 정보로는 국내 연구지원기관별 연구비 현황 DB 그리고, 연구기관 정보로는 분야별 연구기관 목록과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DB 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2) 암 관련 임상시험정보 DB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

설문응답률은 현재까지 약 17.2% 수준이며, 응답자와 무응답자 간의 성별·연령별·전공별·지역별 응답률의 차이는 없었다.

국내 임상시험 정보망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하여 전체 대상자 중 97.7%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 임상시험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국내 수행 임상 시험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필요하였으나 얻지 못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1.0%였다.

국내에 임상시험정보 DB 구축과 공유를 위한 임상시험연구회가 조직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90.3%가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, 이중에서도 71.0%(원시자료 : 40.3%, 연구결과물 : 30.7%)가 자신의 임상시험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. 임상시험정보망 구성 시 우선 구축 대상 정보로는 '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 정보'와 '표준화된 연구 프로토콜 정보' 가 공동으로 1 순위를 차지하였으며,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의 부재가 임상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.

4. 고찰

이상의 연구 결과로 보면 국내에는 국가단위 종합암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암정보의 축척 및 제공이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서는 기관간 연구자간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암연구결과정보, 암연구자원정보와 임상시험정보 관련 DB 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정부와 전문기관의 노력이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.